

## 그리스도의 거하시는 말씀

성경: 골 3:16, 엡 5:18하-20, 3:17, 요 15:7

- I.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 골 3:16.
- A. 골로새서에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머리되심과 중심성과 우주성되심을 계시하기 위해 있다(1:25-27).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관심은 총만한 지식(2:2)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다.<sup>1</sup>
- B.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 골 3:16.
1. 그분의 신약 경륜에서 그분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아들은 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계시록에서 그분의 지체들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히 1:1-2, 2절 각주 2
  2.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약 전체를 포함한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총만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거주하게 하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C.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집안에 있는 것,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역사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적합한 방을 가져야 한다.
- D. ‘하게 하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며, ‘거하다’라는 단어 또한 아주 의미가 깊다. 당신은 탁자를 당신 안에 거하게 할 수 없다. 심지어 당신은 개를 당신의 집에 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거하다라는 단어는 위엄있는 동사로,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2</sup>
- E. 이 구절에 있어서 찬양과 노래에서 넘치는 영적 생명의 내적 채움은 말씀과 관계 있는 반면, 이와 짝을 이루는 구절인 에베소서 5장 18-20절에서는 영적 생명의 내적 채움이 그 영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말씀과 그 영이 동일하다(요 6:63하)는 것을 가리킨다.<sup>3</sup>
1.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사실상 그 영을 받는다. 그 영을 받음은 우리를 솟아오르게 하며 즐겁게 하고 노래하게 한다.<sup>4</sup>

<sup>1</sup>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29장

<sup>2</sup> 위트니스 리 전집, 1985년, 4권, 영문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 모임,” 3장

<sup>3</sup>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29장

<sup>4</sup>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64장

2.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영이 우리 속에서부터 찬양의 멜로디 안에서 흘러넘쳐 나오도록 말씀으로 충만되는 생활이어야 한다 - 골 3:16, 엡 5:18하-19.<sup>5</sup>
  3.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적셔지게 되면 우리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게 된다.<sup>6</sup>
- F. 골로새서 3장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한다.
1.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한 결과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적시고 충만하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있다.
  2.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의 체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체현이신 말씀과 우리 속사람이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 부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게 된다.

## II.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sup>7</sup>

- A. 그리스도의 풍성(엡 3:8)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러한 풍성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 - 골 3.16상.
1.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통로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 존재의 작은 부분에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2. 반대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유로운 통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거처를 정할 것이다.
  3. 우리의 의견과 관념과 사고와 판단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질 것이다.
- B.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서 그들 안에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관념과 의견과 철학이다.
1. 그들은 성경 공부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 안에 거하게 하지 않는다.
  2.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들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 존재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의 존재 안에서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이다. 그들이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바깥에 남아 있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거하게 하고, 우리의 관념과 의견과 철학을 대치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sup>5</sup>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29장

<sup>6</sup> 진리공과 3단계 제3권, 52과

<sup>7</sup>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29장

4.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 예수여, 저는 기꺼이 저의 관념들을 비우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으로 하여금 제 안에서 근거를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꺼이 저의 의견과 철학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서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관념이 지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교 행 19:20.

### III.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함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 - 엡 3:17, 골 3:16.<sup>8</sup>

- A.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하여 말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신격의 총만이다(골 2:9). 이 풍성들은 얼마나 만유를 포함하고 광대한지!
- B.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어떻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가를 묻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신격의 총만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은 그 영에 의하여 그 영 안에 실제화되었다. 더욱이 그 영은 말씀 안에 체현되었다. - 요 6:63.
- C. 한편으로 에베소서 3장 8절과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의 거처를 만드시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1. 그 풍성들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포함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
  2. 만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점령되고 소유된다면, 우리는 또한 영 안에서 그분과 하나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온 내적 존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소유될 것이며 그분과 하나될 것이다
- D. 다른 한편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명한다.
1. 풍성하게라는 말은 풍성과 일치하며, 거하다라는 단어는 「그의 집을 만든다」와 일치한다.
  2.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진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의 거처를 만들기를 갈망하신다.
- E. 1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은혜로 노래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것이다.
1.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는 것은 모두 「거한다」는 동사와 관계 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길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함에 의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2. 우리는 말씀으로뿐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

<sup>8</sup>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41장

IV.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요 15:7.

- A. 주님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허락해 드려야 한다 (7절). 「 말씀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레마(rhema)」이고, 즉각적으로 현재 말한 말씀을 뜻한다.<sup>9</sup>
- B. 그분이 즉각적인 레마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즉각적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시 우리는 교통으로부터 끊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생명의 모든 풍성을 흡수해들일 것이고 열매 맺기 위한 생명의 넘쳐 흐름을 갖게 될 것이다.
- C. 4절과 5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7절에서 표현을 약간 달리하여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대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 D.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한다.
- E.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의 손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유용하고 실질적인 것이 있다.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F. 우리는 날마다, 심지어는 매순간마다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접촉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접촉하는 한 우리는 주님 자신을 접촉하는 것이다.

---

<sup>9</sup>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34장